



李傑三 한국과총 사무총장(왼쪽)이 회담에 앞서 박영신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서기장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과학기술에도 남북교류의 물꼬가 트인다

- 「남북과총 실무대표자 회담」 열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만남과 6. 15 공동선언 이후 경제, 문화, 체육 등 각분야에서 붓물과 같이 터져나오고 있는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드디어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시동이 걸리고 있어 과학기술계에 비상한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들간 두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이 회담에서 남북 양측대표자들은 남북이 상호 필요로 하는 분야의 학술회의 공동개최와, 특히 남북간에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과학기술용어 정비사업 등 앞으로 남북이 협력하여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상대방에 알려주기로 합의하였다.

이들간 두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이 회담에서 남북 양측대표자들은 남북이 상호 필요로 하는 분야의 학술회의 공동개최와, 특히 남북간에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과학기술용어 정비사업 등 앞으로 남북이 협력하여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상대방에 알려주기로 합의하였다.

사실 과학기술분야의 남북간 교류협력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시급하고 그 중요성 또한 강조되어 마땅하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축이며, 정치체제와 이념을 떠나서 선진기술을 가진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의 장벽이 날이 갈수록 두터워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민족끼리의 협력의 필요성 또한 그만큼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과총은 「남북민간과학기술교류추진협의회」를 두고 민간차원에서의 남북과학기술협력을 총괄, 추진하고 있으며, 산하 학회, 연구소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1991년 중국 연길에서 남북과총의 공동주관으로 북측 과학기술자 45명과 남측 과학기술자 1백명이 일주일간 한 호텔에 투숙하면서 가진 학술회의가 최초의 본격적인 남북교류로 기록되고 있으나 그후로는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남북 양기관의 실무대표자급 회담이 성사된 것은 만남 그 자체로서도 큰 의의를 지니는 것일 뿐만아니라 남북양측이 국가적으로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있는 점으로보아 앞으로 과학기술분야에서 다가올 교류의 큰 틀이 지어지고 있는 셈이 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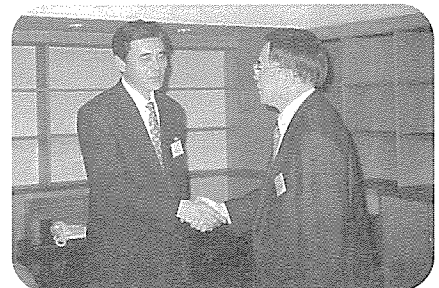
지난 2월 21일 한국과학기술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대표자회의 오장숙주임(국회의장, 가운데) 주최로 열린 남북대표자를 위한 오찬



남북대표단(좌로부터 윤호식 과총 기획정책팀장, 이걸삼 과총 사무총장, 박영신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서기장, 김정부 조선과학기술총연맹 대외사업부장)



성공리에 회담을 마치고 악수하는 남북대표자(李傑三 사무총장과 박영신 서기장)

정책포럼 1백회 기념 심포지엄 개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1주제 발표장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강광남)은 3월 2일 한국과학기술회관 중강당에서 매일경제신문 후원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사업 평가체제의 개선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포럼 1백회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연구개발비 확대 만큼이나 평가·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평가체제 개선방향을 찾는 기회를 마련코자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은 나기산 국방대 교수, 이철원(주)기술과 가치 대표이사, 주승기 서울대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임관 삼성종합기술원 회장, 이채열 매일경제신문 국장, 한민구 학술진흥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벌였다.

국내 최초의 그린빌딩 준공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손재익)은 3월 6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원 내에 국내 최초로 건축한 그린빌딩 연구동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그린빌딩은 1997년에 시작되어 4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된 것

으로, 국내 건축 및 건설업계의 모범적인 건물로 지목될 것이 예상되고, 건물의 본래 기능인 사무공간 및 연구공간으로서의 기능 외에도 전시, 홍보, 교육기능과 건물관련 연구인들의 실험대상이 되는 실험기능을 갖추도록 하였다. 그린빌딩기술은 우리의 생활환경 조건을 개선하고, 주변 생태를 보호하며, 지구온난화의 요인인 CO₂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건축부문에서의 환경보호를 위한 대안이다.

제4회 압연심포지엄 공동개최 예정
한국소성가공학회 / 대한금속·재료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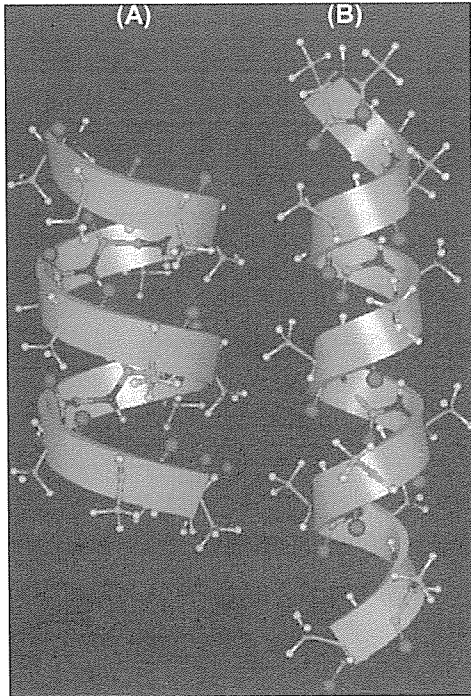
한국소성가공학회(회장 유연철)와 대한금속·재료학회(회장 이재영)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소성가공학회 압연분과위원회가 주관하는 제4회 압연심포지엄이 오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제주도 풍림콘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압연형상, 압연조직, 측정 및 제어, 설비설계 및 공정해석 등을 주제로 현장기술을 개선하고 첨단/미래기술을 탐색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제4회 토목의 날 기념행사 개최
대한토목학회

대한토목학회(회장 김광일)는 3월 30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제4회 토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는 1부에서 김명자 환경부장관, 이건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미우라유지 일본대학 명예교수가 연사로 참석한 가운데 2001년도 토목의 날 기념 초청강연회가 있었으며 2부에서는 기념식 및 리셉션이 진행됐다.

또한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지하철 시청역에서 교량, 항만, 공항, 댐, 원자력발전소, 재해사건 등 토목 시설물 사진전이 개최됐다. 3월 29일에는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도시환경과 도로경관의 현황과 방향을 주제로 도시환경 경관 세미나도 개최했다.

새로운 형태의 단백질 구조 발견
포항공대



왼쪽(A)은 새로 발견된 람다 나선구조(람다-helix)이고, 오른쪽(B)은 널리 알려진 알파 나선구조(알파-helix)이다. 펩티드 양 끝의 전기적 특성에 따라 두 가지 종류의 나선구조중 하나가 결정된다.

포항공대 기능성분자계연구단 김광수교수팀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단백질 아미노산의 나선구조는 모두 오른쪽 방향인데, 왼쪽방향의 나선구조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규명했다. 이는 지금까지 라마찬드란(Ramachandran) 도표로 나선구조를 파악했던 기존 생화학 교과서의 내용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새롭게 발견한 이 단백질구조를 '람다 헬릭스'라 명명했다. 과학기술부의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지원으로 수행한 이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인 미국화학회지(Journal of American Chemical Society) 1월 24일자에 속보로 발표됐으며, 화학 및 화공분야의 혁신적인 연구결과만을 발췌해 기사화하는 미국 화학-화공학회 뉴스(C&EN: Chemical & Engineering News)에도 소개되었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생명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생체 내에서 단백질의 구조 및 기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단백질 나선구조의 안정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광우병, 알츠하이머 증후군 등 뇌질환의 원인을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획기적인 식품의 잔류농약 검출방법 개발
광주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원장 김효근) 환경공학과 구만복교수팀은 보건복지부 식품과학분야 연구사업 지원으로 모든 식품내 잔류 농약으로 인한 독성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간단하고 신속한 추출방법으로 다양한 성질의 농약 성분의 추출이 가능한 효율적이면서 획기적인 잔류농약 검출방법을 개발했다. 이번 개발내용은 식품 내에 잔류하는 농약 성분을 효율적으로 추출한 후 이들의 독성 정도를 특정한 독성에 빛을 방출하도록 유전공학적으로 재조합된 발광성 박테리아를 이용하여 독성 정도 및 추출 효율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제15기 전통과학대학 강좌 개최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승구)에서는 우리 선조들이 유구한 세월동안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일상생활의 경험으로부터 일구어온 겨레 과학기술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일반인들에게 알기 쉽게 교육시키는 전통과학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예술적인 면을 강조하는 여타의 박물관대학과는 달리 우리 과학유산에 대한 각종 연구에서 밝혀진 겨레과학의 원리, 창의성, 우수성 등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각종 시청각교재를 이용하여 교육한다. 특히 강좌를 통하여 배웠던 내용을 과학문화재 탐방을 통하여 직접 그 원리를 찾아보는 매우 흥미로운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접수 및 문의-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www.science.go.kr<http://www.science.go.kr>, 042-861-0496, 601-7974) ㉞